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전주은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6:20-26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산 위의 가르침(1)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현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현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5월 19일	5월 26일
이우선	윤원선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청소년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친교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가을예대시)
아침묵상	(화,수,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누가복음강해(26) 부르심과 보내심

본문 : 눅6:12-19

부르심이라는 주제는 말 그대로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시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크게 3단계로 나뉘집니다. 40대까지는 이집트 왕자로 살았고, 80세까지는 광야에서 목자로,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언제 모세를 불러서 쓰셔야 맞습니까? 이집트 왕자로 살던 때입니다. 그는 젊었고, 용맹했고,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자로서 군사, 정치, 외교 모든 분야에 능숙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모세를 부를 적절한 때는 40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늙어갈때까지 그를 식혀 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되어져야 할 것은 무릎 꿇음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오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의사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이 장면을 두고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있었습니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소원과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는 소통이며 순종입니다. 소통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을 알았다면 그 뜻이 나의 뜻과 다르다고 하여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끝내고 난 자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 옵니다. 내 뜻을 내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보내주신 제자들을 받아 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제자들을 뽑으셨다면 절대로 뽑힐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운 사람도, 명예를 가진 사람도, 권력을 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의 면모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는 이질적인 제자들도 보입니다. 바로 열심당원이었던 시몬과 세리였던 마태가 대표적입니다. 열심당원은 저항운동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의 눈에 마태 같은 세리들은 나라를 팔아 먹은 매국노였습니다. 쉽게 말해 원수와 원수기간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가롯유다는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 가롯유다의 이름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누군가는 여자의 후손으로, 누군가는 뱀의 후손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롯유다만 배신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결국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변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순교의 삶으로 화답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부르심은 신비입니다.